

말, 거짓말, 도덕적 진보-쉬프린(Seana Shiffrin)의 소통윤리론과 탈진실 정치(송지우, 철학사상, 2017)

I. 서론

정치적 담론이나 대화에서 거짓말이 오가가, 나아가 이에 대한 불감증이 생기는 현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 대화에서 진실의 불안정한 지위는 최근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탈진실 정치(post-truth¹⁾ politics)에 대한 반응은 다분히 도덕적인 모습을 띤다. 정치가 원래 그렇다거나, 정치 영역에서 도덕적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냉소적 반응보다는 탈진실 정치현상에 도덕적 문제가 있으며, 이를 규명하고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반응이 두드러진다.

이 글은 탈진실 정치의 도덕적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한 다음, 서나 쉬프린의 소통윤리(communicative ethics) 이론을 그 작업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²⁾. II, III장에서는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을 더 자세히 검토. 이를 토대로 IV장에서는 탈진실 정치의 특징적인 거짓말과 관련 언어 행위를 분류, 묘사한 후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이 이들에 공통된 문제를 짚어내는데 유용하다고 논변한다. 나아가 쉬프린의 핵심 논변을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³⁾.

II. 거짓, 기만, 그리고 정당한 유예 맥락

대개의 소통 맥락에서 우리는, 상대가 진실하게 말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대개의 소통 맥락에는 *진실성의 추정(presumption of truthfulness/sincerity)*이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이 부적합한 대화 맥락도 있다. *인식론적 유예 맥락(epistemic suspended context)*에서는, “상황 자체 또는 맥락 당사자의 행동이나 발언에 관련한 확인가능한 사실들이 청자로 하여금 화자가 진실하게 말하고 있으리라는 예측적(predictive) 인식론적 근거(epistemic warrant)를 가지지 못하게” 한다.

인식론적 유예 맥락은 기술적 또는 예측적 분류이고, 이 분류에 해당하는 맥락의 규범적 평가는 별도 사안이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로써 자신의 발화에 대해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만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동시에 이 맥락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을

1)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2016년의 단어로 선정.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나 개인적 믿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력을 덜한 상황을 보이거나 그와 관련된”.

2) 쉬프린은 최근 저작 *Speech Matters: On Lying, Morality, and the Law*에서 거짓말이 왜 그릇되었는지에 독특한 설명을 시도한다. 1) 쉬프린은 거짓말의 그릇됨을 기만(deception)과 분류해서 설명하는 비표준적 해석을 제안한다. 그럼으로써 기만, 즉 청자를 속이는 것을 의도하는 거짓말, 실제 기만에 성공하는 거짓말, 그리고 기만의 의도도 성과도 없는 거짓말에 공통된 규범적 문제를 짚는다. 이러한 설명은 탈진실 정치의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이러한 비전형적인, 그러나 정치 토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거짓말의 그릇됨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전형적인 거짓말과 비전형적인 거짓말 모두, 소통을 통한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릇되었다는 게 쉬프린의 설명. 쉬프린의 설명은 우리가 정치 영역의 거짓말을 보며 느끼는 도덕적 불편함을 잘 짚어낸다. 2) 쉬프린은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자유주의 도덕 공동체의 건강 그리고 도덕적 진보의 가능성과 연결지어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민주주의 정치 토론에서 진실성이 결여될 때 생기는 문제를 진단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3)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성실한 진실성(good-faith sincerity)의 의무, 즉 대화 목적의 공유를 전제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것이다. 반면 일부 인식론적 유예 맥락은 규범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범적으로 용납할 만한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쉬프린은 *정당한 유예 맥락(justified suspended context)*이라고 부른다. 정당한 유예 맥락에서는 진실성의 추정을 유예할 (i) 정당하고 (ii) 공적으로 접근가능한 이유가 있다. ex) 극단의 즉흥연기 연습, 외국어 교육 시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정당한 유예 맥락이 아닌 맥락에서 화자가 믿지 않고 이를 화자 스스로 아는 명제를 청자에게 선언하는 셈이다. 거짓말을 이렇게 규정했을 때 주목할 점은, 거짓말과 기만이 구분된다는 것이다. 1) 어떤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는 기만이 일어났는지, 즉 청자가 실제로 속았는지 아닌지와 별개이다. 나아가, 발화자는 기만의 의도도 기대도 없이 거짓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기만의 성과도 의도도 없는 거짓말을 쉬프린은 “순수한 거짓말”(pure lie)이라고 부른다. 순수한 거짓말은 기만이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순수하며, 이 점은 그 규범적 분석에 영향을 준다.

Ⅲ. 거짓말의 그릇됨

물론 거짓말은 많은 경우 기만에 이르거나 기만을 의도한다. 그런데 쉬프린이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단지 개념적 정리정돈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와 기만이 그릇된 이유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이다. 쉬프린에 따르면 기만은 자신의 언행으로 다른 사람이 거짓 믿음을 가지게 되지 않도록 유의할, 일종의 주의의무를 위반한다. 순수한 거짓말은 당연히 이런 위반으로 그 그릇됨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순수한 거짓말을 포함한 모든 거짓말에 공통된 규범적 설명은 무엇일까? 쉬프린은 거짓말의 문제점을 (i) 말(speech)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ii)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필수적인 소통 경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본다. 논변은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1) 정당한 유예 맥락을 제외하면, 즉 일반적으로는, 말을 통한 소통 경로에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2) 거짓말은, 그 행동준칙(maxim)이 보편화됐을 때 “진실만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던 메커니즘을 진실과 거짓 모두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그 경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들며 오염”시키는 행위이다. (3)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준칙에 근거해 행동함으로써 청자와 자기 자신, 그리고 나아가 인류에게 잘못을 저지른다.

진실성의 추정을 유지하는 게 구체적으로 왜 중요한가? 우선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답은,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의 인지적 부담이 비효율적인 수준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이다. 진실성의 추정이 일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화 맥락마다 대화 참가자들이 사실을 전제로 말하는지 다시금 확인해야 하며, 이로부터 상당한 인지적 비효율성이 발생할 것이다.

쉬프린의 답 또한 인지적 부담의 증가를 고려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상식적 답변과 구별된다. 첫째, 상식적인 답변이 다분히 결과주의적이라면, 쉬프린의 논변은 그렇지 않다. 거짓말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해서 그릇된 게 아니라, 중요한 상호작용의 조건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둘째, 이때 쉬프린이 주목하는 상호작용은 도덕 공동체의 형성과 유지이다. 그에 따르면, 진실성 추정의 안정적 작동이 중요한 것은 단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의 원활한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진실성을 전제로 한 언어적 소통(linguistic communication)은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주체성(moral agency) 형성과 이 구성원들 각자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도덕적 진보(moral progress)의 조건이며, 이로써 핵심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도덕적 주체성과 소통 전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쉬프린은

도덕적 주체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관련 논의와 그가 기대고 있는 자유주의 전통에 비춰 대략 다음 다섯 가지를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덕적 주체성은 (i) 합리적 사고능력, (ii) 사회적, 물질적 세상에 대한 기본 지식, (iii) 도덕적 규범의 이해와 도덕 관계에의 참여 능력, (iv)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규범을 포함한 정치적 규범의 이해와 정치적 관계에의 참여 능력, (v) 독립적, 자율적 자아로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능력 등을 요구한다. (i)~(v)는 물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 글의 목적상 중요한 것은, (i)~(v) 모두 다른 사람의 마음의 내용(mental contents)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합함으로써만 온전히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ii) 사회적, 물질적 세상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양한 시공간과 매개체의 소통-대면 대화, 책, 언론 매체, 학교 내외의 교육 과정 등-을 통해 습득하게 된다. (i) 합리적 사고능력, (iii) 도덕적 규범의 이해와 도덕 관계에의 참여 능력, (iv)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규범을 포함한 정치적 규범의 이해와 정치적 관계에의 참여 능력 또한 소통 없이 독자적으로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도덕 및 정치 규범은 타인의 마음의 내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그것을 배려 또는 존중해주는 것, (정치적 결정 등 독특한 상황에서) 다수의 의견일 때는 따르는 것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v) 독립적, 자율적 자아로서의 성장 역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음을 통해, 그들과 서로 반응해가며 이루어진다.

도덕적 진보는 우리가 가진 도덕적 이유들을 더 정확하게 이해함,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더 온전히 준수함, 인격을 더 선하고 정의롭게 발전시킴 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한 바 도덕적 진보는, 공동체 구성원 개인 단위에서 (i)~(v)가 증진되고 이 증진이 상호작용에 반영됨으로써 실현된다. 그렇다면, 도덕적 진보 역시 서로 마음의 내용을 적절하게 주고받게 해주는 소통 경로를 필요로 한다.

소통이 이처럼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중요한 가운데, 말로 하는 소통은 특별히 중요하다는 게 쉬프린의 생각이다. 말만큼, (a) 권위(authority), (b) 진정함(authenticity), 그리고 (c) 정확성(precision)을 동시에 일관되게 갖춘 소통 경로가 없다는 것이다. 내 마음의 내용에 직접적 접근이 가능한 건 나뿐이므로, 이에 대한 나의 일인칭 증언은 나에 대한 다른 정보가 지닐 수 없는 권위, 그리고 틀림없이 내 것이라는 진정함을 지닌다. 더욱이 말은, 적어도 대체로, 비언어적 소통보다 훨씬 정밀한 전달을 가능하게 한다. 가령 미소나 손짓, 다가오거나 멀어지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에도 정보가(informational value)가 있지만, 애매하거나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할 소지가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많은 경우 오직 언어적 표현이다. 요컨대 “외부적인 확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에 필요한 정도와 방식으로 “서로의 마음의 불투명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통이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붙는다. 말의 이런 특수한 지위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할 때에만 유지된다. 이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논변의 다음 단계, 즉 (2) 거짓말이 어떤 식으로 소통 경로를 “오염”시키는지의 문제로 넘어가 보자. 이 지점에서 쉬프린은 전쟁에서의 백기를 비유로 든다. 전쟁에서 백기를 흔드는 행위는 오직 항복과 평화적 협상 제안만을 뜻해야 하며, 백기를 비밀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백기를 흔들고 있는 적에 무력으로 대응해서만 안 된다. 백기 규범은 그 어떤 폭력적인 갈등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신성한” 지위를 누린다. 아무리 심한 갈등 상황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합리적 대화를 통한 화합의 길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길을 열어두려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소통의 방법을 보존”해야 하고, 백기 사용 규범의 비애매성 또는 선명함이 바로 그 방법인 것이다.

언어적 소통은, 전쟁에서의 백기 규범처럼 필수적인 규범적 요구 실현의 조건이다. 도덕적 주체성 및 관계의 형성과 유지는 필수적인 규범적 요구이고, 앞선 논의가 맞다면 그 실현은 일관된 권위, 진정함 그리고 정확성을 지니는 소통 경로, 요컨대 언어적 소통이 서로의 “마음으로의 창”으로 기능할 때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백기 규범이 항복의 표시인지 아닌지 애매하면 안 되듯이, 언어적 소통 또한 진실한지 아닌지 애매해서는 소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언어적 소통이 이 역할을 하려면, 그 소통에 진실성의 추정이 기본값으로 깔려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논변은 거짓말의 파괴력을 과대평가한 게 아닐까? 실제 우리의 삶에는 거짓말이 난무하지만, 우리의 언어 관습을 보면 여전히 대부분 소통 맥락에서 진실성을 전제해도 무방한 듯하다. 이렇게 보면, 쉬프린의 논변은 거짓말의 예상 효과를 과장한다고 비판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반론에 대한 답은, (3)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의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날 때 실제로 언어적 소통의 신뢰도가 무너질 것이라서가 아니다. 다시 말해 쉬프린은 결과주의적 논변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의 경험적 효과보다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행동준칙이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하자고 제안한다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는, 그것을 허용하는 행동준칙이 도덕적 주체성 형성 및 도덕적 진보하는 필수적 규범적 요구와 양립할 수 없어서이다. 요컨대 쉬프린은 일종의 합리성의 모순(rational inconsistency) 논변을 제시하는 것이다.

쉬프린은 이와 같은 비밀관성을 견지하는 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릇되었다고 논변한다. 거짓말은 첫째, 대화 상대방에게 그릇된 행위이다. 거짓말은 상대를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동등한 도덕 공동체 구성원-즉 언어적 소통을 서로 도덕적 주체성을 발전시키고 도덕적 진보를 달성할 수 있는 협동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둘째, 거짓말은 발화자 자신에게도 그릇된 행위이다. 거짓말쟁이는 합리적 사고능력을 지닌 동등한 도덕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만 가능한 소중한 소통 수단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킨다. 끝으로, 거짓말을 허용하는 행동준칙은 공적 행위 원칙으로 용납할 수 있는 준칙이 아니며, 이런 의미에서 거짓말은 곧 인류에 대해 그릇된 행위이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를 이렇게 비결과적으로 이해하면, 거짓말의 규범적 문제가 실제 기만 여부와는 별개라는 쉬프린의 주장 또한 선명해진다. 말하자면 거짓말의 문제는 실제로 거짓 정보를 전파함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 전파의 경로를 납치해서 교란함, 즉 “진실만을 전달하는 데 활용되던 메커니즘을 진실과 거짓 모두를 전달하는 메커니즘으로” 활용함에 있다. 기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짓말이 그럼에도 그릇된 행위인 것은, 거짓말의 그릇됨이 이처럼 거짓 정보의 실제 전파와 별개 사안이기 때문이다.

IV. 탈진실 시대의 정치 대화

쉬프린의 핵심 논변은 이른바 탈진실 시대의 정치 대화를 규범적으로 검토하는 데 유용하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검토를 시도하며, 나아가 주로 거짓말에 치중된 쉬프린의 소통 윤리론의 확장을 제안한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에 관한 쉬프린의 논변을 받아들이면, 좀 더 폭넓은 소통 윤리의 의미, 요컨대 성실한 진실성(good-faith sincerity)이라 부를 수 있는 의미를 추정함이 적실하다는 것이다.

탈진실 정치에는 다양한 종류의 거짓말이 난무한다. 그 가운데는 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도 분명 주요하다. 예컨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른 가짜 뉴스 사이트의 보도가 그러하다.

미국 워싱턴 D.C.의 한 피자 가게 주인이 미국 민주당 인사들과 결탁해서 아동 인신매매 행각을 벌인다거나,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는 등의 가짜 뉴스 보도는 분명 독자를 속이라는 목적을 보인다.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참여 인원을 과장한 사건도 유사한 예이다. 트럼프 측은 인원수 과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을 제시했다”고 맞섰으며, 이는 그들이 제시한 숫자에 진실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특히 성공하지는 못한) 시도였다.

탈진실 정치의 특징은 그러나, 기만을 노린다고 보기 어려운 순수한 거짓말 또한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나 개인적 믿음”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탈진실’의 사전적 의미가 지니는 애매함과도 관련 있다. 객관적 사실이 감정 호소보다 여론 형성에 덜 영향을 주게 되는 방식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기만 시도와 실제 기만이 워낙 잦아서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가령 감쪽같은 가짜 뉴스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진짜 뉴스가 상대적으로 묻히는 또는 분명히 구별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더 혼탁한 경우로는, 사람들이 각자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주장을, 그렇게 믿고 싶다는 이유로는 그렇다고 믿으려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옥스퍼드 사전이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 10년 전, 메리엄웹스터 사전은 그해의 단어로 ‘진실스러움’(truthiness)을 선정했다. 진실스러움은 무언가를 객관적 증거와 별개로 “속으로부터 믿으려는 경향”이다. 진실스러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수록 기만 시도 또한 변질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화 대상만 적당하다면, 예컨대 “정치인 ○○○은 돈세탁을 했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을 착취했다”는 등의 주장을 (아무런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기만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령 정치적 지향성에 따라 특정 매체만을 소비하는 또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이른바 이데올로기적 반향실(ideological echo chamber)이 형성되는 현상은 이러한 기만 효과 달성을 도울 것이다.

진실스러움을 좇는 것은 비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진실의 지위가 가지는 특수한 중요성을 전제한다. (그래서 진실 ‘스러운’ 또한 중요성을 획득하는 셈이니 말이다.) 탈진실 정치는 그러나 둘째,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거짓말을 진실로 보거나 제시하려는 아무런 가장이나 시도도 없이, 단지 특정한 정책적 입장의 편에서 제시되었다거나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권력이 내세운 말이므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는 말의 진실 여부에 대한 더 극단적인 무관심 상태에 해당한다. 선명한 예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 아래 사는 사람들이 권력자가 주장하는 바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지지하는 언행을 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조지 오웰의 예시에서처럼 국가권력이 “2+2=5”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을 때, 그 권력 아래 사는 사람들(가운데 적어도 상당수)에게 이 입장이 거짓이라는 것은 부차적 문제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식 입장에 대한 충성 또는 충성이 부족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가능한 국소적인 예로는, 강력한 정치인이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기만의 의도나 기대 없이 거짓을 말하고, 동료 정치인 또는 지지자들이 거짓을 반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거짓을 받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의 참, 거짓 여부보다는 그들이 발화자와 일종의 지배-종속(domination-subordination)은 관계에 놓여있다는 게 중요하다. 발화자 역시 그러한 관계를 견고히 하고자 애초의 거짓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하지만 구분되는 현상으로, 거짓말은 (잠재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누르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지배층이 거짓말을 자행하고 시민사회나 언론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할 때, 피지배층은 지배층과의 권력 불균형을 절감하고 저항 동기를 잃을 수 있다. 게다가 거짓말이 다분히 비상식적일 경우, 피지배층은 극심한 심리적 혼란을 겪고 그만큼 정치적 행동을

조직하고 추진할 용기와 기력을 잃을 수 있다. 가령 오웰의 소설에서 “2+2=5”를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피지배층이 그로써 자신들의 무력함을 확인하게 하는 목적, 그리고 그들의 현실감을 교란하려는 목적 또한 지니는 것으로 읽힌다.

지배-종속 또는 권력관계보다는 공동체의 단절로 생기는 극단적 진실 경시도 있다. 공동체 내 단절이 심할 때는, 형식적으로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적 발언이지만 그 내용이 자신이 소속된 특정 집단만을 염두에 둔 거짓말이 발화되기도 한다. 가령 이 집단의 존속을 위해 재판이나 청문회에서 신빙성이 무척 떨어지는 위증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사례가 있겠다.

아마 진실 여부에 이 정도의 극단적 무관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탈진실 정치는 통상 여기서 소개한 여러 가지 거짓말이 혼재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가령 위 오웰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의 거짓말이 다양한 목적을 지닐 수 있다. 앞서 소개한 트럼프 정권의 거짓말도 이렇듯 여러 목적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는 사진 기록, 통계 수치, 그리고 심지어 기상 기록까지 부정하는, 이른바 “뻔한 거짓말”(obvious lies)을 하고는 한다. 이런 거짓말은 얼핏 보기에 의아하지만, 그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 반항실에 갇혀있는 일부 지지자를 기만하기, 정치적 부하들이 자신의 뻔한 거짓말을 긍정하게 함으로써 그들과의 지배-종속 관계를 견고히 하기, 그리고 뻔한 거짓말의 자유로운 발화를 통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다수 시민이 정치적 무력감을 경험하게 하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 정치적 목적이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목적은 기만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달리 말하면, 특정 청자 집단을 향해서는 기만과 거짓이 섞인 혼합 언어 행위가, 또 다른 집단을 향해서는 기만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거짓말이 일어나는 셈이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거짓말을 아우르는 규범적 진단을 찾는 데에는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이 유용하다. 쉬프린의 이론에 따르면, 이들 거짓말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가 있으며, 이는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소통 맥락에서 그 추정이 더는 합당하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이 다양한 거짓말 모두 그 행동 준칙이 보편화됐을 때에는 정치 영역에서 발화되는 말의 성격을 변질시킨다. 정치 대화 참여자 각각의 믿음을 진실하게 외부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말은, 참여자의 믿음을 진실하거나 거짓되게 외부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는 거짓말의 목적이 기만이든 권력 과시이든 심리적 조작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로써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요한 도덕적 진보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만다. 이는 거짓말의 목적이 기만이든 권력 과시이든 심리적 조작이든 상관없이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로써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은 주요한 도덕적 진보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만다. 전쟁에서 백기를 드는 행위가 오직 항복의 수단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항복의 수단일 수도, 공격의 수단일 수도 있게 되면 안 되듯이, 정치 영역에서의 말도 진실하거나 거짓된 외부화 수단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소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달리 말하면, 정치에서의 거짓말은 정치적 소통 맥락을 인식론적 유예 맥락으로 변화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나 정치적 소통이야말로 정당한 유예 맥락이 될 수 없는 영역이다. 정치적 소통은 롤스가 말하는 기본 구조의 성격과 내용을 정하는 수단이고, 롤스가 논증하듯이 기본 구조의 성격과 내용은 공동체 구성원의 생애 시작부터 엄청난 만연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정치 결정은 공동체 내 다른 집단적 결정과 비교하기 어려운 최종적인 힘과 권위, 불가피성을 지닌다. 그만큼 정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는 게 중요하다. 나아가 쉬프린, 그리고 이 글이 가정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사회, 즉 자유롭고 평등한 도덕적 주체들로 구성된 도덕 공동체에서 정치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 대화에 진실성의 추정이 확고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가짜뉴스, ‘대안적 사실’, 권력 과시용 거짓말, 심리 왜곡용 거짓말, 내부자 집단에의 충성용 거짓말 모두, 이처럼 진실성의 추정이 특별히 중요한 소통 맥락을 인식론적 유예 맥락으로 대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도덕적 잘못인 것이다.

거짓말을 기만과 개념적으로 연동시키는 (어쩌면 더 표준적인) 해석을 취하면, 이처럼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탈진실 언어 행위를 관통하는 진단을 내리는 게 어려워진다. 그래서 (기만을 전제하는) 거짓말과 구별되는 또 다른 언어 행위 항목, 예컨대 프랑크푸르트가 주장하듯이 개소리의 별도 항목을 상정해야 한다. 그 이론적 비용은, 기만이 섞인 거짓말과 순수한 거짓말이 공유하는 도덕적 뿌리, 즉 진실성의 추정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소통경로의 중요성을 자칫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소개된 예시는 주로 상식적인 사실(truth)과 의견(opinion)의 구분 가운데 사실이 걸려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쉬프린의 분석이 이러한 상식적 구분을 전제하거나 보존하려는 것은 아니다. 실제 쉬프린은 상업적 표현의 영역에서의 과대광고 독트린, 즉 “사실이 아닌란 단지 의견을 개진하는” 과대광고에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미국 법 독트린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예를 들어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사가 “책임감 있는 글로벌 시민”이라고 피력하는 은행이나 “기적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아스피린”을 판다고 광고하는 제약회사는, “그 어떤 별충적 목적도 찾을 수 없는 소통상의 난잡함”(communicative clutter for no redeeming purpose)을 만들어낼 뿐이라는 것이다. 과장광고 독트린은 이러한 난잡함을 법적으로 허용해주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합법적인 인식론적 유예 맥락을 만든다.

성실한 근거 없이 제시되는 정치적 과대광고, 예컨대 “나는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정치인”이라는 등의 표현이 용인되는 정치 문화도 같은 이유로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치적 소통의 건강은 단지 거짓말을 피하는 것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것이다. 쉬프린처럼 거짓말을 폭넓게 규정해도 그러하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치적 소통이 그 역할을 하는 데 방해되는 언어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 우리에게 익숙하다. 예를 들어 “기업인 ○○○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라고 답하는 경우, 또는 “당선됐으니 공약대로 가정마다 인공지능 로봇을 한 대씩 제공할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지능 경쟁력을 갖춰야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발화자는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를 믿는다고 치자. 그렇다면, 두 경우 모두 쉬프린의 분류상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발언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두 가지 발언 모두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대신, 얼핏 들으면 답이 될 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은 “소통상의 난잡함”을 만들어 낼 뿐이다. 과장광고에 대한 쉬프린의 비판이 맞는다면, 이런 진실한 어수선함 또한 소통을 통한 도덕적 진보의 목적에 비취봤을 때 그릇됐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자는 이 사례를 쉬프린의 이론에 대한 비판에 사용할지 모른다.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에 대한 쉬프린의 논변이 거짓말이 아닌 언어 행위에도 적용되며, 따라서 그의 이론에서는 거짓말과 참말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더 적실한 판단은, 해당 사례를 반론이 아닌 흥미로운 통찰로 보는 게 아닐까 싶다. 구체적으로, 거짓말과 참말 사이 개념적 구분과 용납 가능한 언어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사이의 규범적 구분은 완전히 포개지지 않는다. 모든 거짓말은 (쉬프린의 규정에 따르면) 그릇되지만, 모든 참말이 용납가능한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일부 참말이 그릇된 이유는 거짓말이 그릇된 이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상응하여, 개념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지만 규범적으로는 거짓말과 연속선상에 있는 언어 행위

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상정할 수 있다. 글에서 논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자면, 이른바 성실한 진실성의 의무, 즉 대화 목적의 공유를 전제하거나 그로부터 이탈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할 의무를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적인 소통윤리 의무가 생기는 것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다양한 소통윤리 의무가 모두 공통된 규범적 목적-이 경우에는 소통을 통한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의 목적-에 근거한다면, 의무의 다양성 이론적 혼란보다는 이론의 풍부함을 반증한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V. 결론

“진실과 정치의 사이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은 그 누구도 의심한 적 없고, 그 누구도 정치적 덕목에 진실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한 적 없다”는 아렌트의 냉소적 진단은 체념해서가 아니다.

사실적 진실(factual truth)을 거짓말로 일관되고 완전하게 대체하는 것의 결과는 거짓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진실이 거짓으로 폄하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진실 대 거짓의 분류는 그 정신적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이 파괴된다는 것이다. ... 그리고 이 문제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아렌트의 문제의식을 체계화하는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핵심은, 도덕 공동체 구성원들의 도덕적 주체성 형성과 도덕적 진보를 위해서는 오직 진실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언어적 소통 경로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글은 쉬프린의 주장과 그 논변을 되도록 설득력 있게 해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했을 때 쉬프린의 이론이 현재 국제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치 문제인 소위 탈진실 정치의 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논변했다. 탈진실 정치에는 다양한 성격과 목적의 거짓말이 존재하지만, 이들 모두 우리가 “세상에서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 특히 도덕적 주체로서의 방향을 찾아가는 방식을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문제 된다. 같은 취지에서, 쉬프린의 주된 초점인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의무는 논변을 확장해서 성실한 진실성의 도덕적 의미 또한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더불어 진실성이 정치 대화 맥락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논변했다. 그리고 이 논변은, 정치 결정에서 소통의 비중이 큰 민주주의 사회에 더욱 적절할 것이다. 요컨대 쉬프린의 소통윤리론은 정치적 대화의 내용과 방식이 민주주의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글이 해석한 바 그의 이론이 맞는다면,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치적 반진실성, 또는 탈진실 정치의 사례는 민주주의가 병들었다는 증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